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3호 [루게 제24991호] 주제104(2015)년 8월 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품을

스웨리예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다》를 스웨리예조선인민협회와 스웨리예주재사상연구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스웨리예조선인민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발행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을 맞아 스웨리예조선인민협회와 스웨리예주재사상연구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번역 출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그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위대한 사상과 혁명업적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렵지 않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정의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불세출의 위인,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굽이친 만민흙모의 대하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공적과 지질로 한생을 그토록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고 파란만장한 20세기를 전설적기적으로 빛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7월 8일에 즈음하여 더욱 뜨겁게 분출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 조국해방 일흔둘이 되는 올해 진보적인류는 조선민족의 구세주이시고 불멸의 혁명적당의 창건자이신 천출위인의 서거 21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맞아보아서는 국왕의 지시에 따라 함강군당 부수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회고 캄보자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인도네시아, 인디아, 타이, 미얀마, 로디니아, 도이칠란드에서 정당회고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인민단결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엄숙히 거행되고 기내,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화은실참관식이 마련되었으며 로씨야에서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전시회가 개막된 것을 비롯하여 5대륙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가 수백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라오스통신, 수리아중앙TV방송, 탄자니아신문 《우후루》, 에리트레아 《농업근로자》, 우루과이신문 《라 푸엔테스》, 베네수엘라의 텔레비전 방송, 도이칠란드반세연단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사진문헌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성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성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통일군과 양화수산사업소에 정중히 모시었다.

1980년 12월 양화수산사업소를 찾았을 때 모자이크벽화와 가공에서 현상을 일으키며 어로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 때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으며 많은 실비도 보내주시어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만대에도 전승하려는 이 뜻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아리었다. 평양철강공장에 모신 모자이크벽화에는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형성되어있다.

불세출의 위인,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굽이친 만민흙모의 대하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공적과 지질로 한생을 그토록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고 파란만장한 20세기를 전설적기적으로 빛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7월 8일에 즈음하여 더욱 뜨겁게 분출되었다. 조선민족의 구세주이시고 불멸의 혁명적당의 창건자이신 천출위인의 서거 21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맞아보아서는 국왕의 지시에 따라 함강군당 부수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회고 캄보자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인도네시아, 인디아, 타이, 미얀마, 로디니아, 도이칠란드에서 정당회고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인민단결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엄숙히 거행되고 기내,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화은실참관식이 마련되었으며 로씨야에서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전시회가 개막된 것을 비롯하여 5대륙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가 수백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라오스통신, 수리아중앙TV방송, 탄자니아신문 《우후루》, 에리트레아 《농업근로자》, 우루과이신문 《라 푸엔테스》, 베네수엘라의 텔레비전 방송, 도이칠란드반세연단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사진문헌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조국해방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으로 뜻깊게 맞이하자

당앞에 결의다진 7월공사목표 빛나게 점령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선군조선의 전승의 역사를 대를 이어 빛내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자랑찬 승리의 개기가 울려 퍼졌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을 맞는 7월에 1호 발전소연체공기트라이앵글을 114%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리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백두의 열파랑정신으로 한사합일이 펼쳐나 지날 7월 21일까지 우안지대수직부본공기트라이앵글을 114%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우안지대수직부본공기트라이앵글을 114%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우안지대수직부본공기트라이앵글을 114%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일강청년돌격대원과 평안북도 1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공사에 달려붙은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결속하고 지상전공사에서 편일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그들은 선별장과 혼합장, 언체기중기와 내연기관와 동기계설 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라인전선을 확장하고 대담한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7월에 3만 4 000㎡이상의 기고타입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은 중심부연체공기트라이앵글을 총력투입하여 3대한 공역 건설을 돌이켜보아 4개 블록의 기고타입실적을 완성하였다.

물동량수송이 자 분 공사속도를 높여 7월 7일 5 000㎡이상에 달하는 세멘트와 골재를 수송하였다. 이와 함께 2호발전소 발전설비수송을 위해 무산과 청진까지의 멀고 험한 수백리 수송길을 달리고 또 달려 발전설비

총량의 95%가 넘는 수백의 물품을 현지까지 운반해오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선군조선의 전승세대의 승교한 투쟁정신을 빛내이며 당앞에 다진 7월공사목표를 빛나게 점령한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청년절을 맞는 8월에 1호연체공기트라이앵글을 8만 5 000㎡이상에 달하는 세멘트와 골재를 수송하였다. 이와 함께 2호발전소 발전설비수송을 위해 무산과 청진까지의 멀고 험한 수백리 수송길을 달리고 또 달려 발전설비



백두청춘들의 전투적기상이 세차게 나타나는 속에 날을 따라 변모되어가는 1호발전소연체

중소형발전소들이 은을 낸다

자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이 은을 내고있다. 도안의 백수십개에 달하는 중소형발전소들이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중소발전소관리국 일꾼들은 물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한 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중소발전소관리국 일꾼들은 중소형발전소들에서 한방울의 물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대책을 세우고있다. 홍추청년 1호, 2호발전소를 비롯한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수문바깥보수와 교체작업을 신속하게 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도중소발전소관리국 일꾼들은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지도사업을 펴고있으며 정밀리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우고있다. 판곡에서는 지취부내 배수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 시, 군기상관속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비내림량을 정확히 알아보고 관측을 강화, 과학화하여 장차강, 복원에 일관된 계단식발전소들이 관측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판곡기술인민들이 시, 군들의 발발을 없애고 발전설비들의 효율을 높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발전소건설 추동

청진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파견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청진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파견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최첨단과학기술과 함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선별장과 혼합장, 언체기중기와 내연기관와 동기계설 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라인전선을 확장하고 대담한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7월에 3만 4 000㎡이상의 기고타입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은 중심부연체공기트라이앵글을 총력투입하여 3대한 공역 건설을 돌이켜보아 4개 블록의 기고타입실적을 완성하였다.

물동량수송이 자 분 공사속도를 높여 7월 7일 5 000㎡이상에 달하는 세멘트와 골재를 수송하였다. 이와 함께 2호발전소 발전설비수송을 위해 무산과 청진까지의 멀고 험한 수백리 수송길을 달리고 또 달려 발전설비

총량의 95%가 넘는 수백의 물품을 현지까지 운반해오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선군조선의 전승세대의 승교한 투쟁정신을 빛내이며 당앞에 다진 7월공사목표를 빛나게 점령한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청년절을 맞는 8월에 1호연체공기트라이앵글을 8만 5 000㎡이상에 달하는 세멘트와 골재를 수송하였다. 이와 함께 2호발전소 발전설비수송을 위해 무산과 청진까지의 멀고 험한 수백리 수송길을 달리고 또 달려 발전설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에짚트아랍공화국 방문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드 파라흐 알 세씨각하의 초청에 따라 새로운 수에즈운하개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에짚트아랍공화국을 곧 방문하게 된다.

본사기자 정순성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의 은인, 민족의 전설적영웅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에로 다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수 있다.》

김 일 성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
☆ ☆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7(1958)년 5월



백두산 밀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삼지연못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7(1958)년 5월



항일혁명투사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83(1994)년 5월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항가》를 들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81(1992)년 12월



대흥단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1(1972)년 6월

지식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에서

우리의 두뇌,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의 3대혁명 전시장에서 기술혁신전에서는 지금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번갈아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는 2년에 한번씩 진행되어 왔다. 뜻깊은 올해에는 진행되어 지난해에 13번째로 전람회 개최된데 이어 또다시 열렸다.

새로운 앙상을 머고 진행된 지난해 전람회는 출품건수와 참가단위수, 참관자수 그리고 평점이

나 교류수익에 있어서 최고의 기록을 냈을뿐아니라 전람회이후 몇달이 지나도록 그 여운을 그냥 남겼다. 이로부터 발명 및 새 기술의 창조자들과 수요자들사이를 직접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폭넓고 활발한 과학기술교류마당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던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전람회를 준비하면서 발명품과 기술품들은 과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실지 상황은 시작부터 낙관적이었다고 한다.

올해에도 전람회가 열린다는 것이 알려진 후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를 비롯한 직할시들, 각 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기된 참가신청건수가

은 기간에 무려 4 000건을 돌파하였던것이다. 이것 또한 전례가 없는것이라고 한다.

발명품과 새 기술품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전람회에는 그 가운데서도 최근시기 위대한 수명품들의 유출과 경애하는 인민수령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발명품이나 특허로 등록된 대상을 비롯하여 수요가 높은 기술품도 상당한 2 500여건의 우수한 발명품과 새 기술, 새 제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두뇌와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새를 앞서나갈 민족적자존심과 배양이 깃들여있는 것이 귀중한 창조물들 가운데는 착상인 기발하고 독 특할뿐아니라 경제 적실리와 현실적 의의가 큰 좋은 제안들이 많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양어용수 질종합분석기,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서명혁동무의 홀로몬식제설기, 발명가 림복동무의 복명국소지혈물약, 최창근수의 방역소의 오로대장염예방약 등 수많은 가치있는 제안들을 내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과학자, 기술자들도 많지만 대학생, 군인, 로동자, 농민들도 있고 일군들 또한 적지 않다. 평안남도구강병에방한 부원장 황일국동무와 배송종합식료공장 3대혁명소조원 황원경동무와 같이 아버지와 딸이 함께 참가한 발명가부녀도 있고 3부자발명품도 있었다.

참가단위들의 열의 또한 굉장 하다고 한다.

출품된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들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 별로, 직할시와 도별로 전시되어 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분야와 핵공학분야의 제안 들은 단위에 관계없이 따로 꾸러민 4개의 부문별전시대에 집중적으로 전시되어있다. 서로의 대비와 경쟁속에서 좋은 점은 적극 살려보려고 하는 인자극복할수 있게 하려는 주최측의 인색없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 새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삼복의 겨울도 한두머위에도 구애가 없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전람회장장을 찾았다고있다.

누구나 자기 단위에 필요하고 자기에게 요구되는것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한 기운이 높아가는

속에서 전람회장은 통째로 창조자와 수요자가 쉽게 뺨리 만나는 공간, 활발하고 적극적인 과학 기술교류마당으로 되고있으며 제안자들은 자기가 내놓은 발명 품과 새 기술, 새 제품의 가치와 생명력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평가받고있다.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를 국내에서 이룩된 좋은 기술성과 들이 집대성되는 곳, 그래서 누구나 필요할것을 손쉽게 얻을수 있는 과학기술교류거점으로 만들자는것이 발명품과 새 기술의 목표이며 여느때없이 많이 출품 된 좋은 제안들에 대한 평가사 일을 잘하여 전람회조직기열의 열의로도 계속 고조시켜나갔다는 것이 이들의 결심이다.

이번 전람회장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것은 경애하는 인민수령님의 정력적인 명도덕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걸쳐서 일어났고 있는 과학기술영역에서 발명품과 새 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 새로운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놀라운 속도로 지난해와 또다르게 높아 갔다는것이다.

우리의 두뇌,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지식경제강국을! 경애하는 인민수령님의 명도덕과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10월의 대승전승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민의 양동하는 기상이 넘치는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의 성과가 기대 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명희

총성과 혁신으로 알아온 창조자의 열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 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올해 우리 당에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물을 3 대목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것을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하여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히 이와 관련한 성과와 발전의 열매로 옮겨 갔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서만도 수많은 발명, 새 기술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농업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출품된 농작물 생육기억이 짧고 비료용 적게 요구하며 농위구루로 수확이 높아 참관자들로부터 당이 세신 알록 고치정병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된 새 제품들을 바라보느라 인민생활 향에서 절리없는 문제를 푸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한문 단단히 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인민수령님의

말씀과 기대를 새겨안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분발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농업과학기술의 투쟁모습이 눈앞에 선히 어려웠다.

이밖에 이상기후조건에서도 높은 수확을 담보하는 여러가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신진영농방범들과 각종 영양제, 활성제, 성장촉진제, 종자보호제, 미량, 다량원소비료들과 미생물비료, 복합비료, 생물농약과 살충제, 살초제, 농기계들... 농업부문에서만도 그 종류와 가지수를 미처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안들이 전시된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기어이 풀겠다는 결사의 각오로 지난 1년 간 얼마나 힘찬 투쟁을 벌여왔는가를 짐작할수 있었다.

인민생활향상을 향상시키는것을 장군님의 유언관철에도 가장 중요하고 신치적인 문제로 우선 경애하는 인민수령님의 승인과 뜻을 받들려는 과정에 이룩된 축산과 수산부문의 과학기술성과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며 먹거리와 소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집집강장화장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신제품, 먹이첨가제, 양 어장들에서 수질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집약양어를 실현 하고 물고기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는 양어용수질종합분석기, 여러가지 어로방법으로 계절에 구별없이 물고기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는 6 2KW 세소산농기계, 양어못의 생육 조건을 개선할수 있는 마이크로 발생장치...

어찌 이뿐이라. 전람회장의 어느 전시대, 어느 부문을 과학기술성과를 보아도 느끼는바가 같다.

집체적지혜와 창의성발성을 발휘하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실할 필요로 하는 수많은 발명품과 새 기술, 새 제품들을 연구개발해낸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이들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앞장서서 열어 나가고있는 시대의 선구자들이 아니겠는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명품들의 생산의 뜻이고 우리들이 목숨바쳐 관철하여야 할 고귀한 유언이다. 위대한 수명품들의 뜻을 받들어 과학기술중시의 승고한 경풍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인민수령님의 비범하고도 투철한 창조와 헌신의 세계를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인민수령님의 비방한 사색의 세계, 람구의 세계, 착상의 세계의 명마루에 올라서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람회참가자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의이다. 그 지향, 그의지로 하여 끊임없는 마음속 경경을 안고 우리는 이것을 떠나

강 철웅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통신산업연구소의 구내IP전화회선기 《발》, 국가과학원 기공물학연구소의 열역학정형충방광소분포프, 111로제 작소의 원격가속도 측정기술을 리용한 핵명사적물분해 합성기조종제, 《연소첨가제와 착화첨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연화첨가제와 착화첨가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들에 차근 차근 설명해준다.

《...본제안은 탄질에 관계없이

《이것을 도입하면 방안온도를 얼마나 더 높일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을 받았다고 예견이나 한듯 제안자는 더 웃어 내서 대답한다.

《분사식압력설비는 일반보일러와 광의용량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연소열을 100% 잡아서 판을 따르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방안온도를 그전보다 3-5°C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 구명관을 연료로 하는 소형보일러, 1.2V 물분포를 리용한 가정용냉난방제, 대용량 로동발전기, 고효율무동력구 명반보일러 등이 출품된 전시대의 여러곳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의견을 교환하는 열정에 넋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모습들이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신뢰 자원보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은 여기 전시대에도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연소첨가제와 착화첨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연화첨가제와 착화첨가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들에 차근 차근 설명해준다.

《...본제안은 탄질에 관계없이

《이것을 도입하면 방안온도를 얼마나 더 높일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을 받았다고 예견이나 한듯 제안자는 더 웃어 내서 대답한다.

《분사식압력설비는 일반보일러와 광의용량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연소열을 100% 잡아서 판을 따르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방안온도를 그전보다 3-5°C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 구명관을 연료로 하는 소형보일러, 1.2V 물분포를 리용한 가정용냉난방제, 대용량 로동발전기, 고효율무동력구 명반보일러 등이 출품된 전시대의 여러곳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의견을 교환하는 열정에 넋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모습들이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신뢰 자원보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은 여기 전시대에도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활기를 띠고있는 지적제품류통

마지막까지 종합해보아야 정확 한 결과를 알수 있지만 개막후 2-3일동안의 진행정황을 보면 전자정보부문을 특히 여러가지 측정 및 분석수단들과 관리세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것은 여러 부문, 여러 단위에 있어서 생산활동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말없이 증시 하는 사실자로서 매우 주목할 만 하다.

다음으로 수요가 높은것은 우

전람회시작에 출품대상들에 대한 안내문이 먼저 배포되어 사전소개가 진행된것은 전람회장에서의 지적제품류통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겠다.

개막식날부터 여러가지 출품 대상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제기되며 이날 저녁 갈수록 계속 높아나고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 특히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제품에 대한 모두의 애착이 커지고 있는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살림집문제, 먹는물문제, 땀길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어느 전시대나 많은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이 흥성이고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곳은 땀길부분 전시대이다.

나라의 산림자원보호와 에너 지 절약문제가 중요하게 나고있 있는 문제가 가시지 기관, 공장, 기업소들이 누구나 쉽게 받아 들여 먹을 보게 될 발명품과 새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그만큼 높고있다.

그중에서도 모란봉구역연구소의 전시대앞에는 미처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땀길 종이 한장으로 착화판에 불을 달수 있습니까?》

《착화판에 불이 붙어올라오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연소첨가제와 착화첨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연화첨가제와 착화첨가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들에 차근 차근 설명해준다.

《...본제안은 탄질에 관계없이

《이것을 도입하면 방안온도를 얼마나 더 높일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을 받았다고 예견이나 한듯 제안자는 더 웃어 내서 대답한다.

《분사식압력설비는 일반보일러와 광의용량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연소열을 100% 잡아서 판을 따르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방안온도를 그전보다 3-5°C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 구명관을 연료로 하는 소형보일러, 1.2V 물분포를 리용한 가정용냉난방제, 대용량 로동발전기, 고효율무동력구 명반보일러 등이 출품된 전시대의 여러곳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의견을 교환하는 열정에 넋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모습들이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신뢰 자원보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은 여기 전시대에도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연소첨가제와 착화첨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연화첨가제와 착화첨가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들에 차근 차근 설명해준다.

《...본제안은 탄질에 관계없이

《이것을 도입하면 방안온도를 얼마나 더 높일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을 받았다고 예견이나 한듯 제안자는 더 웃어 내서 대답한다.

《분사식압력설비는 일반보일러와 광의용량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연소열을 100% 잡아서 판을 따르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방안온도를 그전보다 3-5°C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 구명관을 연료로 하는 소형보일러, 1.2V 물분포를 리용한 가정용냉난방제, 대용량 로동발전기, 고효율무동력구 명반보일러 등이 출품된 전시대의 여러곳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의견을 교환하는 열정에 넋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모습들이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신뢰 자원보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은 여기 전시대에도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관심을 모는 기술강습, 과학기술발표

성과적으로 보장해주시는 의의가 있는 문제를 취급한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공문과과학자 유선동동무의 《천연생물활성제》, 중앙발전연구소 실장 박사 조수경동무의 《머지드나리버섯과 새 배변법》, 전기연구소 실장 최희봉동무의 《수백KW용역 및 태양 및

발견소 발전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는 당정책적요구가 반영되어있고 사람들의 생활과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있는 대안적이고 보편화 된 문제들을 취급한 한편전체의 기술강습과 과학기술발표에 대한 호평은 대단하다. 앞으로 개막을 하루 앞둔 날에는 종이 한장으로 살필수 있는 착화판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모란봉구역

애국의 마음 합쳐지는 곳 전시대에서

이점은 무엇입니까? 《분사식압력설비는 더운물과 찬물의 압력차를 조성하여 저열로 물을 흐를수 있게 하였으므로 물은 물분포를 100% 나고있 하고 더운물은 빠른 속도로 많은 면적을 들수 있게 하여 방안온도를 쉽게 높일수 있습니다.》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분사식압력설비를 도입하면 일반가정용보일러와 기온보일러에서 대기중으로 날아가던 증기회 실현상을 극복하게 되어 나라의 실용적인 자원을 많이 절약하게 된다.

대상이 끝나기 바쁘게 편이여 물음이 남아있다.

《연소첨가제와 착화첨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연화첨가제와 착화첨가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들에 차근 차근 설명해준다.

《...본제안은 탄질에 관계없이

《이것을 도입하면 방안온도를 얼마나 더 높일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을 받았다고 예견이나 한듯 제안자는 더 웃어 내서 대답한다.

《분사식압력설비는 일반보일러와 광의용량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연소열을 100% 잡아서 판을 따르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방안온도를 그전보다 3-5°C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 구명관을 연료로 하는 소형보일러, 1.2V 물분포를 리용한 가정용냉난방제, 대용량 로동발전기, 고효율무동력구 명반보일러 등이 출품된 전시대의 여러곳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의견을 교환하는 열정에 넋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모습들이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신뢰 자원보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은 여기 전시대에도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연소첨가제와 착화첨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연화첨가제와 착화첨가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들에 차근 차근 설명해준다.

《...본제안은 탄질에 관계없이

《이것을 도입하면 방안온도를 얼마나 더 높일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을 받았다고 예견이나 한듯 제안자는 더 웃어 내서 대답한다.

《분사식압력설비는 일반보일러와 광의용량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연소열을 100% 잡아서 판을 따르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방안온도를 그전보다 3-5°C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 구명관을 연료로 하는 소형보일러, 1.2V 물분포를 리용한 가정용냉난방제, 대용량 로동발전기, 고효율무동력구 명반보일러 등이 출품된 전시대의 여러곳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의견을 교환하는 열정에 넋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모습들이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신뢰 자원보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은 여기 전시대에도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순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7월 30일 거느린 일행은 세계각지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인류의 반제자주위업과 세계의 평화수호에 불철의 공헌을 하시어 세계평화의 원로,

새로운 선전화를 창작

경 조국해방 70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최근 선전화를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선전화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도시형성의 본보기로!》는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수상에 따라 한회의 축포가 퍼져오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중심부문에 개선문이 형성되어있고 아래부분에 조선의 국화 목련꽃들이 부각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우리 나라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김국향선수가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7월 24일부터 로제야의 까잔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미국, 에스파냐, 오스트랄리아, 우크라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일념으로 30일 결승경

우리 나라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김국향선수가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7월 24일부터 로제야의 까잔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미국, 에스파냐, 오스트랄리아, 우크라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일념으로 30일 결승경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우리 나라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김국향선수가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7월 24일부터 로제야의 까잔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미국, 에스파냐, 오스트랄리아, 우크라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일념으로 30일 결승경

우리 나라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김국향선수가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7월 24일부터 로제야의 까잔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미국, 에스파냐, 오스트랄리아, 우크라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일념으로 30일 결승경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8월 중 자자기 현상

8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13시-15시)
7일(6시-8시)

9월(8시-10시)
13일(11시-13시)
22일(5시-7시)
25일(7시-9시)
29일(11시-13시)
청진지방
3일(13시-15시)

8월(7시-9시)
11일(9시-11시)
14일(18시-20시)
19일(20시-22시)
23일(6시-8시)
25일(16시-18시)
30일(18시-20시)

8월 중 자자기 현상

8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13시-15시)
7일(6시-8시)

9월(8시-10시)
13일(11시-13시)
22일(5시-7시)
25일(7시-9시)
29일(11시-13시)
청진지방
3일(13시-15시)

8월(7시-9시)
11일(9시-11시)
14일(18시-20시)
19일(20시-22시)
23일(6시-8시)
25일(16시-18시)
30일(18시-20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가라미도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송수일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중앙통신】

탁월한 군사전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침략의 길로 졸달음치는 군국주의마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레베카》 제26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일성대원수》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한세대 두 세국주의를 타승하신 대원수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던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이것께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도 세계《희망》을 지향하며 미제와 미국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과시하시였다.

조선이 거둔 기적적인 승리는 그의 탁월한 전략술과 독창적인 군사전법, 명철한 명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도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이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의 불멸의 군사적업적은 세계 반제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필리핀신문 《이스크라》 7월호는 47월 27일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공화국을 요란기에 압살하려고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유엔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방대한 침략병력을 조선에 투입하였던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참패를 당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 나라 신문, 방송 특집

조선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칙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전쟁기간 156만 7 000여명의 적유생력병을 살상 및 포로하고 수많은 전투기술기체들을 파괴, 로획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스》 7월 26일 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희세의 전략가》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편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오랜 침략자를 가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치밀한 전쟁에서 이룩한 기적적인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술과 독창적인 군사전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국이 남조선군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자 조선인민군이 즉시적인 방공격으로 이행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기적의 군사리론이나 교범, 다른 나라들의 전쟁경험에도 없는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방공격 전략이었다.

김일성동지의 명철한 전략에 따라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즉시로 좌절시키고 방공격으로 넘어간 조선인민군은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돌입하여 피괴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으나 한달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 전지적의 90%이상을 해방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전법법을 제시하시고 그를 활용하도록 하시여 현대전쟁사의 빛나는 장을 펼쳐주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산악전, 강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등 수많은 군사전법들이 창조되게 되었다.

그중 강도전만 놓고보아도 산이 많은 조선의 특성과 기술적우세에만 머물러있던 적들의 상례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창조된 혁명한 전법이였다.

남리 일리엔 1211고지방위전투에서의 승리로 다음날인 강도전법이 가져다준 결실이었다.

세계《희망》이라는 미국의 수적, 기술적우세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조선인민군의 전략술적우세에 의하여 산산히 부서져나갔다.

라오스신문 《통원빠싸손라오》 7월 24일 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승열병적주의에서 연설하시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의 승리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1950년 6월 25일 적들의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해 남조선피괴군을 사육하여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에 방대한 병력과 군수물자들을 동원한데 대하여, 그러나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손실을 입고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당한데 대하여 수자자료들을 들어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끝내 1953년 7월 27일 적들의 항복사 다음없는 정전협정에 이르지 않았던 안이다.

조선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융합한 교훈을 찾아 내신 전후에도 끊임없이

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계속 격화시켰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에 단호히 대처해왔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진으로!》, 이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은 빈말을 모르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서고 있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 저버》 7월 22일 부는 《조선의 7.27》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의 운명이 《72시간내에 결판》나게 된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인류전쟁사에 특기할 사면이 일어났다.

미국측은 전쟁기간 156만 7 000여명의 유생력병을 살상 및 포로당하고 수많은 전투기술기체들을 잃었다. 미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얻은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2, 3배에 달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방공격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와 정규군에 의한 강력한 제2선진형 세, 즉국적인 진지방어진 등 명철한 전략술과 강도전, 배후침, 비행기 및 항공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화통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법에서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는 신선이 부서졌다.

같은 날 기네 국내, 국제방송도 한세대 두 세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병도 업적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마차 가 맹렬히 내달리고있다.

그 고삐를 자인당이 쥐고있다. 최근에도 일본반동들은 국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 불구하고 안전보장판변법안이라는것을 중의원에서 강행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외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들을 허용함으로써 미군과 동맹국들과의 군사적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병력과 그 주변에 대한 방위책이 국한되었던 일본의 군국주의적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약 안전보장판변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일본에서는 패망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불리워오던 헌법헌법을 제쳐놓고 전쟁헌법을 만들어내려고 이처럼 발악적으로 백동하는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결국 이것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교전권과 참전권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이 침략과 전쟁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군사주의의 재생은 현실로 되고있다.

전략술과 강도전, 배후침, 비행기 및 항공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화통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법에서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는 신선이 부서졌다.

같은 날 기네 국내, 국제방송도 한세대 두 세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병도 업적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려는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떠들면서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들을 정당화하려 하고있고 그것은 황당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들에서 무서운 제침야망과 세계제패야망을 똑똑히 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아시아지배야망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군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약 안전보장판변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일본에서는 패망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불리워오던 헌법헌법을 제쳐놓고 전쟁헌법을 만들어내려고 이처럼 발악적으로 백동하는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결국 이것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교전권과 참전권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이 침략과 전쟁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군사주의의 재생은 현실로 되고있다.

전략술과 강도전, 배후침, 비행기 및 항공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화통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법에서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는 신선이 부서졌다.

같은 날 기네 국내, 국제방송도 한세대 두 세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병도 업적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제침야구에 들떠 돌아가는가.

일본의 해외침략은 시간문제라 남았다.

이번 법안채택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정세에 빠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국내에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일본평 여거지에서서 법안을 반대하여 법적 불복고치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안표결시 야당지도자가 법안을 반대하는 최종연설을 한 후에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의정당내로 회담해나서고 일본의 법 불복문자들과 학자들 등 각계층 인사들이 헌 정부를 반대하여 합시위를 벌이고 같이 버리고있는 형편이다.

헌법자랑들로 구성된 여는 어느 단계에 성명을 발표하여 법안을 강행표결하려는 헌 정부의 처사를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현재까지 법안을 반대하여나선 일본의 학자 및 연구사들만 하여도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 일본집권자의 지지율은 땅바닥에 떨어지고있다.

헌 정부내각총리가 일제때망 70년을 맞으며 세계앞에서 과거범죄를 심각히 반성하고 사회, 배상한것을 바라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세계가 정적으로나선 일본의 행동은 예리한 눈치로 주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를 무시하고 제정신없이 침략열을 불피다한다면 그로부터 차례질것은 저주와 멸시, 국제적외립이러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 명 성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이라핵전쟁을 시작할것을 우려하고 변질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대담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보도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보도

필리핀신문 《엔도인 년전》, 인디아의 PIT통신과 신문들인 《타이니스 오브 인디아》, 《힌두》, 《뉴스21방송》, NDTV방송, 이란의 일나신과 신문 《카이한 리네슈넨》, 만나통신과 신문 《더 글로블 뉴 라이트 오브 만나》, 싱가포르 TV《아시아소식》, 네덜란드 《네탈 투데》,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스》 그리고 나이제리아 외무성 대변인대답의 전문 또는 요지를 전하였다.

최근 수리아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명도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일마전 수리아정부는 민병대와 협동하여 수도 다마스카스와 연결되고 지중해항구를 나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팔미라에서 《이슬람교국가》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수리아정부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이슬람교국가》전투원들을 살상하면서 민병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이슬람교국가》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다.

달라진바와 같이 《이슬람교국가》는 이라크와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 점령지역들에 사 강도, 인질범치, 인신매매, 밀수 등을 강행하고있다. 또한 탐치한 너성들을 상대로도 매매하고 포로한 사람들을 대한 살해행위를 통하여 화원범치 인신매매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테로공격위협을 공개적으로 강행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리아는 《이슬람교국가》세력을 자국의 명도에서 내몰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리아는 이 투쟁을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벌이고있다. 수리아는 자국의 군대와 민병대들에 의거하여 테로세력들에 대한 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다.

수리아의 정부는 쿠르드민병대들의 협동작전을 벌려 하세키에 침입한 테로분자들을 수많은 소탕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이슬람교국가》는 포위된 테

러한 수리아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명도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일마전 수리아정부는 민병대와 협동하여 수도 다마스카스와 연결되고 지중해항구를 나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팔미라에서 《이슬람교국가》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수리아정부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이슬람교국가》전투원들을 살상하면서 민병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이슬람교국가》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다.

달라진바와 같이 《이슬람교국가》는 이라크와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 점령지역들에 사 강도, 인질범치, 인신매매, 밀수 등을 강행하고있다. 또한 탐치한 너성들을 상대로도 매매하고 포로한 사람들을 대한 살해행위를 통하여 화원범치 인신매매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테로공격위협을 공개적으로 강행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리아는 《이슬람교국가》세력을 자국의 명도에서 내몰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리아는 이 투쟁을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벌이고있다. 수리아는 자국의 군대와 민병대들에 의거하여 테로세력들에 대한 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다.

수리아의 정부는 쿠르드민병대들의 협동작전을 벌려 하세키에 침입한 테로분자들을 수많은 소탕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이슬람교국가》는 포위된 테

러한 수리아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명도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일마전 수리아정부는 민병대와 협동하여 수도 다마스카스와 연결되고 지중해항구를 나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팔미라에서 《이슬람교국가》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수리아정부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이슬람교국가》전투원들을 살상하면서 민병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이슬람교국가》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다.

달라진바와 같이 《이슬람교국가》는 이라크와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 점령지역들에 사 강도, 인질범치, 인신매매, 밀수 등을 강행하고있다. 또한 탐치한 너성들을 상대로도 매매하고 포로한 사람들을 대한 살해행위를 통하여 화원범치 인신매매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테로공격위협을 공개적으로 강행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리아는 《이슬람교국가》세력을 자국의 명도에서 내몰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리아는 이 투쟁을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벌이고있다. 수리아는 자국의 군대와 민병대들에 의거하여 테로세력들에 대한 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다.

수리아의 정부는 쿠르드민병대들의 협동작전을 벌려 하세키에 침입한 테로분자들을 수많은 소탕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이슬람교국가》는 포위된 테

러한 수리아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명도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일마전 수리아정부는 민병대와 협동하여 수도 다마스카스와 연결되고 지중해항구를 나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팔미라에서 《이슬람교국가》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수리아정부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이슬람교국가》전투원들을 살상하면서 민병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이슬람교국가》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다.

달라진바와 같이 《이슬람교국가》는 이라크와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 점령지역들에 사 강도, 인질범치, 인신매매, 밀수 등을 강행하고있다. 또한 탐치한 너성들을 상대로도 매매하고 포로한 사람들을 대한 살해행위를 통하여 화원범치 인신매매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테로공격위협을 공개적으로 강행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리아는 《이슬람교국가》세력을 자국의 명도에서 내몰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리아는 이 투쟁을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벌이고있다. 수리아는 자국의 군대와 민병대들에 의거하여 테로세력들에 대한 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다.

수리아의 정부는 쿠르드민병대들의 협동작전을 벌려 하세키에 침입한 테로분자들을 수많은 소탕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이슬람교국가》는 포위된 테

러한 수리아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명도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일마전 수리아정부는 민병대와 협동하여 수도 다마스카스와 연결되고 지중해항구를 나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팔미라에서 《이슬람교국가》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수리아정부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이슬람교국가》전투원들을 살상하면서 민병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이슬람교국가》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다.

달라진바와 같이 《이슬람교국가》는 이라크와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 점령지역들에 사 강도, 인질범치, 인신매매, 밀수 등을 강행하고있다. 또한 탐치한 너성들을 상대로도 매매하고 포로한 사람들을 대한 살해행위를 통하여 화원범치 인신매매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테로공격위협을 공개적으로 강행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수리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리아는 《이슬람교국가》세력을 자국의 명도에서 내몰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리아는 이 투쟁을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벌이고있다. 수리아는 자국의 군대와 민병대들에 의거하여 테로세력들에 대한 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다.

수리아의 정부는 쿠르드민병대들의 협동작전을 벌려 하세키에 침입한 테로분자들을 수많은 소탕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이슬람교국가》는 포위된 테

로씨야 쿠릴열도에서의 진지강화문제에 대해 언급

로씨야국방장 세르게이 쇼이구가 7월 24일 국방성 참모회의에서 쿠릴열도에서의 진지강화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현재 쿠릴열도에 주둔한 군부대들의 장비현대화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9월경에 기본적으로 끝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푸릴열도의 푸나쉬르와 이부루에서 군사기지건설이 끝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북극지역과 푸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들을 위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살함집과 병인, 영화관, 도로들이 건설되는것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가족들의 편리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모든 조치가 갖추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해군무력강화 노력

로씨야에서 해군무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7월 26일 이 나라 해군총사령관이 발한데 의하면 올해까지 10척의 전투함정들과 40척 이상의 보급선들이 해군에 납입된다

고 한다. 현재 과학연구기관에서는 10대이상의 작공기와 약 450명의 보병을 실어나를수 있는 대형상륙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국내산 수력발전 공계

이런에서 자체로 만든 첫 수력발전기를 시험하고 있다.

이 사업은 9월경에 기본적으로 끝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푸릴열도의 푸나쉬르와 이부루에서 군사기지건설이 끝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북극지역과 푸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들을 위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살함집과 병인, 영화관, 도로들이 건설되는것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가족들의 편리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모든 조치가 갖추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업은 9월경에 기본적으로 끝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푸릴열도의 푸나쉬르와 이부루에서 군사기지건설이 끝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북극지역과 푸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들을 위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살함집과 병인, 영화관, 도로들이 건설되는것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가족들의 편리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모든 조치가 갖추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9월경에 기본적으로 끝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푸릴열도의 푸나쉬르와 이부루에서 군사기지건설이 끝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북극지역과 푸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들을 위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살함집과 병인, 영화관, 도로들이 건설되는것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가족들의 편리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모든 조치가 갖추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9월경에 기본적으로 끝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푸릴열도의 푸나쉬르와 이부루에서 군사기지건설이 끝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북극지역과 푸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들을 위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살함집과 병인, 영화관, 도로들이 건설되는것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가족들의 편리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모든 조치가 갖추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9월경에 기본적으로 끝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푸릴열도의 푸나쉬르와 이부루에서 군사기지건설이 끝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북극지역과 푸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들을 위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살함집과 병인, 영화관, 도로들이 건설되는것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가족들의 편리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모든 조치가 갖추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7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케논시에 있는 한 마을에 쳐들어가 탄압을 부리던 끝에 21살 난 팔레스타인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에 앞서 21일에도 가지지해의 북부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팔레스타인어부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하였다.

또한 이스라엘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7월 26일 이스라엘 경찰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7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케논시에 있는 한 마을에 쳐들어가 탄압을 부리던 끝에 21살 난 팔레스타인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에 앞서 21일에도 가지지해의 북부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팔레스타인어부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하였다.

또한 이스라엘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7월 26일 이스라엘 경찰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7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케논시에 있는 한 마을에 쳐들어가 탄압을 부리던 끝에 21살 난 팔레스타인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에 앞서 21일에도 가지지해의 북부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팔레스타인어부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하였다.

또한 이스라엘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7월 26일 이스라엘 경찰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역사의 반동세력들과는 오직 강력한 힘으로 맞서싸워야 한다

지난 7월의 국제정치 흐름은 순탄치 않았다.

시대는 전진하고있으나 력사의 흐름을 뒤돌려세워 버리는 자들의 의도적 책동이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이에 말미암아 령화되고 변형하는 세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적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있다.

7월이 들어서면서 세계의 눈초리는 일본에 쏠리고있다. 대망 70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것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되었다.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과거범죄력을 성실하게 반성하려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기 를 바랐다. 그것은 과거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보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와 배치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벌어졌다. 과거범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강행되었다.

일마전에 일본은 저들의 군대산업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줄것을 신청하였다.

이것이 아시아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시아나라들은 일본의 군대산업시설들은 아시아인들이 중세기적으로로 동물을 강요당한 곳이라고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원하고있다.

시대가 이렇게 변천하자 일본반동들은 여기저기서 찾아다니다 뒤 뒤공부를 벌리는 한편 유대니스트주제 일본대표를 내세워 강대국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던것이 저들의 목적이 실현되자 즉시에 돌변하여 일본대표의 발언에 당치않은 해석을 붙이며 과거